"화해의 손잡고 극락기원"

불교극 '노미오와 주리애'

24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한복을 입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스님을 주례로 하여 불교 결혼식을 올리고, 두 청춘남녀의 죽음을 맞게된 양 가문은 함께 영산재를 올려줌으로써 망자들의 극락길을 기원하며 진실한 화해의 손을 잡는다.'

비극적인 사랑의 대명사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국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수세기에 걸쳐 온인류의 심금을 울려온 셰익스피어 작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국적인 불교극으로 시각화돼 상연되고 있어 화제다. 인천시립극단이 제21회 정기공연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안한 '노미오와 주리애'(연출 이승규)를 공연하고 있는 것(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작품의 무대는 조선조 후기 수원, 주진사(캐플렛家)의 딸 주리애(줄리엣)와 노진사(몬태규家)의 아들 노미오(로미오)는 주진사댁 환갑잔치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다. 두 양반가문은 원수지간이므로 노미오와 주리애는 무광스님의 주선으로 은적암에서 비밀결혼을 한다. 그러나 수원장터에서 주진사의 조카 주석철(티볼트)이 말다툼 끝에 노미오의 친구 박갑수(머큐쇼)를 죽였고 노미오는 주석철을 죽였기 때문에 노미오는 강화로 추방된다.

한편 아버지가 박양수(파리스)와의 결혼을 강요하자 주리애는 무광스님과 상의한 끝에 죽은듯이 보이는 비약(祕藥)을 마신다. 이 소식을 들은 노미오는 강화에서 달려와 은적암에서 주리애를 발견하고는 절망 끝에 음독자살하고 뒤늦게 깨어난 주리애 역시 노미오의 죽음을 발견하고 자살하게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 번안 시나위 연주단 국악 가미 영산재 대미 장식

전통민속 및 불교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나위 연주단이 이끄는 애절한 국악연주와 김영화씨의 도창이 한껏 비극적흥취를 더하고 능화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천 구양사 주지)의 지도로 구현된 노미오와 주리애의 결혼식 장면과 두사람의 극락길을 천도하는 영산재가 한결 작품의 품격을 승화시키고 있다.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를 한 국인의 정서에 맞게 번안해 보여주는 '노미오와 주리애'는 특히 15분동안 대미를 장식하는, 죽은 이들의 극락길과 양가문의 갈등과 미움을 씻는 영산재의 화려하고도 고풍스런 의식이 출연진은 물론 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도 참회와 기원이라는 동참의 자리를 마련,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이경숙 기자

◇노미오와 주리애의 죽음을 일게된 양 가문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무광스님이 두 집안의 화해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

◇5·18의 아픔을 형상화한 고영을作 '5·18 영령들이여 극락왕생하옵소서'.

"5·18 영령들이여…"

고영을 탱화전

18~24일 조형갤러리

내년 3월 파리서 초대전

현실의 역사의식을 전통적인 탱화기법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추구해온 고영을씨(광주여고 교사)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조형갤러리에서 탱화개인전을 갖는다.

3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탱화전에서 우리 현대민족사의 최대 아픔으로 여겨지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5·18 영령들이여 왕생극락하옵소서', 독도 문제가 한참 가시화된 지난 2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독도 방문을 모티브로 조성한 '독도는 우리땅' 시리즈,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상징하는 '극락을 방문하는 성모님' 등의 작품은 그의 이러한 현실의식을 잘 대변해 주는 대표적 작품들. 전남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고씨는 지난 81년부터 탱화부문 무형문화재 구봉스님에게 탱화를 사사해 왔다.

내년 3월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쉴브에서 탱화초대전을 가지며 내년 가을에는 일본에서의 전시회도 계획되어 있다.

우바이무용단 창단 '춤 포교'

21일 기념공연…단원 30여명 학문적 연구

무대위에서 펼쳐지는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가뿐 호흡속에 녹아든 불법의 진수를 맛보게 할 불교무용단이 창단된다. 오는 21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창단공연을 갖는 '우바이무용단(단장 심산스님)'은 무용전공자들을 주축으로 30여명의 단원들이 춤으로써 포교하며 불교문화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우바이무용단은 창단공연에서 1부 '바람소리-그대마음은 어디로 가고있는가'를 비롯 선(禪)무용 형식의 '생명의 춤'과 '북소리-그 울림', 능화스님(영산재 이수자)의 범음에 맞추어 '나비춤' '바라춤' 등을 공연하며, 2부에서는 임동창씨의 피아노연주와 장사익씨의 노래 '하늘가는 길'에 맞추어 즉흥적인 춤을 선보이는 실험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생명의 춤'에서는 진정한 생명의 몸짓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을 춤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하늘가는 길'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기쁘고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는 즉흥적인 춤으로 꾸며져 모두가 한번쯤은 직면하게 되는 삶의 문제를 불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상임안무가 이명미(혜화여고 무용교사)씨는 "앞으로 전통불가에서 추었던 춤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춤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우바이무용단은 매년 1~2차례의 정기공연을 갖게되고 각종 불교계 행사에서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내년에는 서울공연과 몽골초청공연까지 예정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아름다운 몸짓으로 불법을 전하는 '우바이무용단'이 오는 21일 창단공연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불심시심 〈72〉

강마을 풍경

百尺飛樓背水陰 (백척비루배수음) 물을 등지고 백척으로 나는 누대
檻前春物碧森森 (함전춘물벽삼삼) 난간 앞 봄풍경 푸르름 거듭 거듭
雲收白岳千層玉 (운수백악천층옥) 구름 걷힌 흰 뫼는 천 층의 흰 구슬
日謝滄波萬頃金 (일사창파만경금) 창파로 지는 해는 만 이랑의 황금
繞座風燃歸落筆 (요좌풍연귀락필) 자리에 둘린 풍경 붓 끝에 모여 떨어지고
滿庭花鳥入新吟 (만정화조입신음) 뜰에 가득한 꽃 새는 새로운 시구로 들다
江天無限晴光好 (강천무한청광호) 강마을 끝없이 개인 풍광 아름다우니
奇賞平生熟似今 (기상평생숙사금) 이 기이한 감상 평생에 오늘같음 있을까

이 시도 지난 주에 보았던 무경대사의 시이다. 명경루(明鏡樓)에서 지은 시이다. 명경루라는 누대 이름이 암시하듯이 이 누대는 물을 배경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기에 물을 등졌다 하였다. 물에 비쳐져서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누대가 한층 더 높이 솟은 것으로 보인다. 이 높이 솟은 모습에서 전편의 시상이 일었던 것이다.

누대에 오르면 누대 앞의 풍경에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때 눈앞의 풍경은 봄날의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이 한 마디로 누대를 에워싼 모든 경지를 휘잡아 놓은 것이다. 다시 시선을 높이 들면 앞 산이 보이고, 산 위는 한 점의 구름도 없고 흰 뫼뿌리만 드러나 있으니 이 뫼뿌리야말로 천 층으로 솟은 백옥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면 다시 고개를 숙여야 함이 자연스러운 몸가짐이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강물에 멎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럴 때 시선안에 드는 것은 끝없이 출렁이는 황금물결이다. 왜 황금일까. 때마침 지는 햇살이 강심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 마을의 석양 풍경이다.

다시 시선을 누대 안으로 옮겨 작가의 주변으로 끌어당겼다. 나를 둘러싼 풍경이 모두 나의 붓끝으로 모여들었다. '돌아와 붓 끝에 지다(歸落筆)'는 표현이 돋보인다. 다시 시선을 조금 옮기면 뜰의 상하에 꽃과 새가 반긴다. 저절로 시의 소재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이 한 편의 시가 탄생한다.

이 모두가 오늘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다. 이렇듯 단순한 것같은 풍경이지만, 이를 대하고 있는 작자에게는 아직 느껴보지 못한 광경이다. 왜 이런 풍경이 처음이겠는가 항시 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듯 하루하루의 생활을 더없이 새롭게 느끼면 그것이 바로 별천지요, 만약 신선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신선이 아닌가. 대사의 시는 이런 점에서 바로 대중에 일깨움을 주는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 소식

'한국음식대관' 간행

사찰음식등 우리 전통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한국음식대관〉이 간행될 예정이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한국음식대관〉은 51명의 전문집필진에 의해 3,039종에 달하는 전통음식을 분야별로 묶어 전 6권에 담는다.

내달 발간되는 제1권 '한국음식의 개관'은 한국음식의 역사를 비롯 영양, 재료, 조리원리와 명절풍속, 문헌 및 식생활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후반기에는 6권째인 '궁중의 식생활, 사찰의 식생활'을 발간하고 년차적으로 매년 1권씩 간행 오는 2001년 전 6권을 완간한다.

'…사찰의 식생활'에는 사찰음식의 이론적 배경, 발우공양의식, 조리법 등 사찰음식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소개된다.

전통문화학교 부여에

전통문화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오는 99년 3월 개교예정인 4년제 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부지로 충남 부여 규암의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선정됐다〈본지 71호 13면 참조〉. 백제문화유적이 집중 분포돼 있는 부여에 설립되는 전통문화학교는 현장실습 등 실기위주의 교육을 통해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학위를 수여한다.

불교와 유교문화 조화 '엿보기'

호암갤러리 '조선전기국보전'

성보 28점등 202점 전시

'몽유도원도' 감상 절호기회

조선개국부터 임진왜란까지 2백여년에 걸친 조선전기 문화유산의 전반을 조망해 볼수 있는 대규모전시회 '조선전기국보전'이 지난 14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60일간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불상 범종 불화 사리기 등 불교미술품 28점을 비롯 서화 서예 나전 도자기 등 170건 202점이 전시되는 이번 국보전에는 특히 조선전기 최고의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견의 그림 '몽유도원도'가 지난 86년 전시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일본에서 건너와 전시되어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전시되는 조선전기 불교미술품들은 고려시대에 화려했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에 걸맞는 독특한 조선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즉 토속적이고 민중적으로 전개되는 조선후기 불교미술의 양식적 전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기의 문화는 건국의 새로운 이념인 유교를 바탕을 전개되어 나가지만 유교와 불교, 조선과 고려의 요소가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보다 한국적인 미의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전시와 관련 오는 1월22일(오후 2시)에는 삼성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홍윤식 교수(동국대 예술대학원장)의 '조선전기의 불교미술' 학술강연회가 개최된다.

◇조선전기국보전에 나오는 15세기 '금동보살좌상'(국보 170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읽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맑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